

# 새로운 땅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읽을거리

## 환경실천으로 이어갈 환경위기의 담론

정수복

크리스찬 아카데미 기획연구실장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있다. 환경운동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와 기업이 환경문제를 말하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제는 누구나 입버릇처럼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작 21세기 지구와 인류의 생존문제가 달려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문제의 심각성을 줄여가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그 어느 곳에서도 들려오지 않고 있다. 군데군데 의미 있는 운동과 작업들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넓게 퍼진 환경위기에 대한 담론을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환경실천으로 이어가야 할 때이다.

### 대안적 삶에 대한 논의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보았을 때 최근에 발간된 몇 권의 책은 우리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다. 박이문의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당대), 머레이 북친의 《사회생태론의 철학》(술), 불교환경교육원이 엮어낸 《공동체를 찾아서》, 사티쉬 쿠마르의 《사티쉬 쿠마르》(한민사), 헬렌 니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보리) 등이 그것이다.

위의 책들은 한결같이 현대문명의 위기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씌어진 책들이다. 그런데 논의의 수준은 각기 다르다. 박이문의 책이 환경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생태학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면, 북친의 책은 심층생태론과 뉴에지 운동 등 생태사상운동 내의 잘못된 흐름들을 비판하면서 사회생태론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불교환경교육원의 책이 자연친화적 생태사상을 집합적 삶의 꼴로 실현해 보려는 사람들의 공동체 운동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 쿠마르와 니어링의 책은 지배적인 현대 문명의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는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태학의 기본원리는 다양성, 관계성, 순환



농장에서 톱질을 하고 있는 스코트와 헬렌(《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중에서).



환경위기에 대한 담론은 이제 더욱 구체적인 환경실천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발간된 몇몇 책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다. 환경문제는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 정치체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라보자는 '생태학적 개종'을 요구한다.

성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의도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상호 순환을 통하여 전체적인 균형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대안적 세계관에 대한 논의, 대안적 사회체계에 대한 논의, 대안적 삶의 양식에 대한 논의가 상호 연관을 가지며 논의되고 그것들 사이의 순환적 관계가 형성되어, 어느 한 수준에서의 논의가 다른 수준에서의 논의를 강화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때 환경논의가 파편적 추상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벗어나 통합적 구체적 수준에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위에 언급한 다양한 차원의 책들 사이의 관계성과 순환성을 찾는 통합적 독서가 요구되는 것이다.

### 환경문제의 해결은 세계관 전환에서

먼저 박이문의 책은 인간중심적 세계관에서 생태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물질적 경제성장 위주의 중앙집권적 정치와 과학기술의 맹신에 기초한 현대문명의 지배적 세계관에서 탈물질주의적 정신의 가치를 중시하고, 자연의 수용능력을 존중하는 생산양식과 분권적 정치체계가 실현되고, 생태적 원리에 입각한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생태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이야말로 환경문제 해결의 근본적 차원이다.

이러한 논의에 이어 북친은 인간의 자연 지배는 인간의 인간지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인간사회 내의 모든 지배관계를 없애고 개인의 자발성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대안적 사회체계를 꿈꾼다. 북친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대의제 민주주

의라는 정치체제를 결코 자명한 출발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넘어서는 대안적 사회체계의 건설이, 없이는 결코 인류의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본다.

불교환경교육원의 공동체에 관한 책은 이런 북친의 논의를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전개한다. 공동체운동론이 그것이다.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사회체계의 모습을 지금 이곳 어느 한구석에서나마 실현시켜 보려는 집합적 노력이 바로 생태공동체운동이다. 이 책은 공동체운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운동을 소개하고 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다.

공동체운동 논의는 개인적 삶의 차원에서 생태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권의 책으로 이어진다. 인도에서 9살에 출가하여 진정한 구도자의 삶을 살며 평화를 위한 3만리의 순례를 하고 영국 웨일즈의 한촌에서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자연친화적 삶을 실천하면서 슈마허 칼리지라는 작은 생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티쉬 쿠마르의 자서전과, 미국의 야만적 산업주의 문명에 반기를 들

# 미국의 학술흐름 보여주는 정보창고

'미국 대학출판연합'의 인터넷 사이트

김종현 · 경희대 대학주보사 편집간사

고 버몬트의 숲에서 생태적 삶을 산 스코트 니어링과의 삶을 기록한 그의 반려자 헬렌 니어링의 책이 그 것이다.

## '생태학적 개종' 요구

이 모든 책들은 따로따로 출판되었다고는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 책들은 환경문제가 결코 과학기술이나 환경정책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이며 사회체계의 문제이며 삶의 양식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환경 문제는 환경문제가 아니다"라는 역설을 이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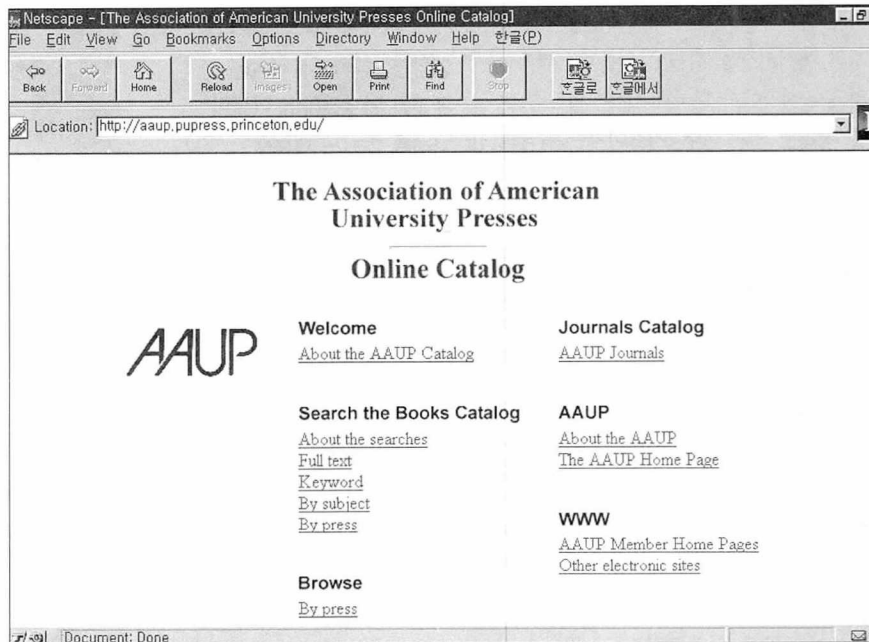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우리 인간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모색하며, 보다 분권적이고 참여적인 정치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들이 세상과 사회와 삶을 바라보는 의미들을 송두리째 바꾸는 '생태학적 개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심층적인 차원에서의 생태학적 세계관과 사회관 그리고 인생관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한 새로운 뜻과 새로운 땅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읽을거리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음 또한 기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다차원적인 수준에서 씌어진 여러 책들 사이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순환성을 열어가는 것이다. 여러 수준에서의 논의가 서로 따로 노는 한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 인식은 이루어질 수 없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논의를 요구한다.

개인적 삶과 대안적 사회체계 그리고 대안적 세계관에 대한 논의가 서로를 강화하고 풍요롭게 하는 관계성과 순환성을 이루고, 그것들이 종합되어 한편의 책으로 다시 씌어지고, 그 책을 출발점으로 하여 각각의 차원에서 새로운 책이 씌어지는 순환 운동이 이루어질 때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논의와 실천이 분명한 가닥을 잡아갈 것이다. ❖

**미국 대학출판연합의 인터넷 사이트는 114개 대학 출판부들이 링크되어 있다. 또한 이들 출판부가 만들어낸 10만여권의 학술서들이 망라되어 있어 미국의 학술흐름을 조망할 수 있다.**

미국의 학술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미국 대학출판연합 사이트.



미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출판부를 설립했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초대 총장 길먼(D.C.Gilman)은 연구와 조사, 그리고 그 결과의 출판이라는 세 가지로 대학의 기능을 설명했다. '조사' '연구'라는 학자들의 전통적인 역할에 '출판'을 덧붙인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만큼 연구성과를 출판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업적의 의미를 넘어 대학과 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끈이 되는 셈이다.

대학 언론에 몸을 담고 있는 필자로서는 사회적 출판의 흐름도 관심사이지만 대학에서 출판되는 책들에 대한 관심 또한 그에 못지 않다. 특히 대학원에서 언론학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출판현실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필자만 느끼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두 권쯤 서구의 원서를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출판사가 거의 각 대학 출판부였다는 점에 부러움을 느꼈을 만하다.

한국의 대학출판부들은 경제적으로나 인원면에서 일반 출판사들을 따라가기에 벅하다. 비록 서울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들에서는 의욕적으로 출판사업을 진행시켜 타 대학의 부러움을 사고는 있지만, 대다수의 대학 출판부는 거의 의욕상실증에 걸릴만큼 열악한 재원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이라 해서 다를 것은 없다. 다만 미국내 각 대학 출판부들 간

의 연합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타산지적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공동작업과 공동판매 등 협업 프로그램으로 열악한 재정 현실과 인원부족을 메워가고 있는 미국 대학출판연합(The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y Press)은 그 본보기라 할 수 있다. 1937년 설립된 AAUP는 비영리 기구이면서도 자신만의 시장을 개척해가며 열악한 미국내 대학출판의 한계들을 극복해내고 있다.

AAUP는 매년 동부·중부·서부 등 각 지역별 회의를 개최하는가 하면, 전자출판·재정운영·디자인·광고기법 등에 대한 각각의 전문가 회의를 주관한다. 또한 각종 출판지표를 공개하고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며, 재정관계에 이르기까지 각 대학의 출판부들이 처하고 있는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수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어 관심을 끈다.

AAUP의 인터넷 사이트(http://aaup.pupress.princeton.edu)는 바로 이들 연합체의 사업과 활동을 살펴보기에 유용한 곳이다. 이곳에는 캐나다 5개 대학과 유럽 6개 대학을 포함한 114개 대학 출판부들이 가입되어 있고 링크되어 있다. 또한 이들 출판부들이 만들어낸 10만여권의 학술서들이 망라되어 있어 미국의 학술흐름을 조망해 볼 수 있는 보물창고이기도 하다. 이곳에 소

고되어 있는 책들은 사회과학과 인문학, 예술과 과학기술 등의 전문적인 학술서는 물론 문학서에 이르기까지 대학 출판부들의 관심사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 한국의 대학출판이 나아갈 바를 시사하고 있다.

대학출판은 이제까지 학기내에 소요될 교재를 출판하는 역할 정도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역할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AAUP는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이해와 관심사를 반영한다든지, 교재위주의 출판에서 벗어나 전자출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기획, 그리고 단행본 위주에서 벗어나 저널 형태의 학술지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1580년 옥스퍼드 대학에 최초의 대학출판부가 설립된 이후로 대학의 출판물들은 학문의 영역에서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학출판물의 다양한 변화도 모색되어야 한다. AAUP의 인터넷 사이트는 그러한 의미에서 대학 출판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로 각광받을 만하다. ❖